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상징색, 유족 뜻 따라 '하늘색'으로 ... 화성시청 추모제 '계속'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06 12:53

아리셀과의 첫번째 교섭, 사측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시민추모제 "더이상 노동자가 죽음에 내던져지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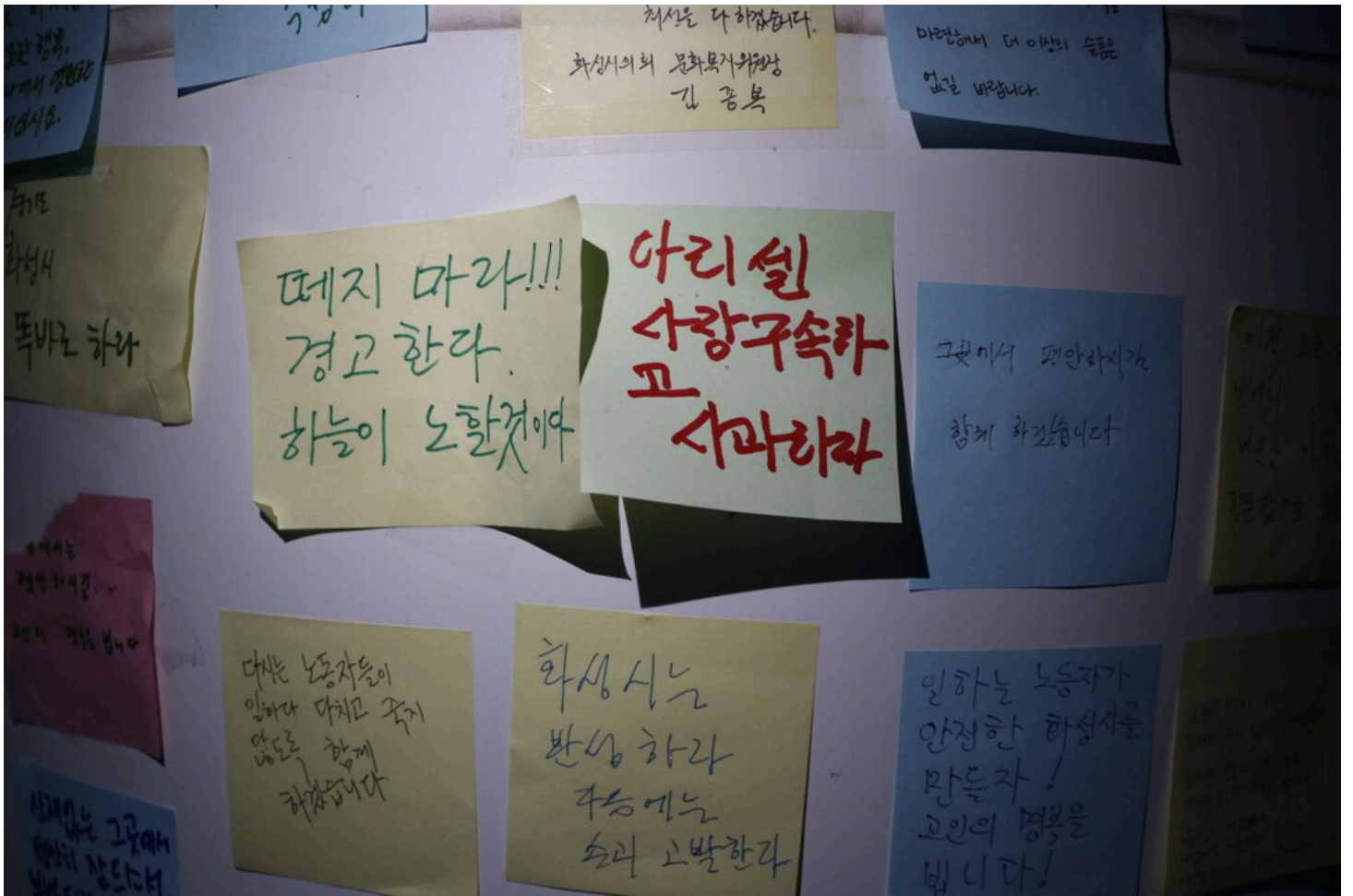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상징하는 색깔이 유족의 뜻에 따라 하늘색으로 결정됐다. 유족들은 논의 끝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상징색을 '하늘색'으로 결정했다.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는 '수원 노란리본공작소' 활동가들이 방문해 유가족과 함께 상징색으로 정한 '하늘색 리본'을 만들어 나누어 달았다.

이번 참사에 아파하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모두에게 나누자는 의미다. 이번 참사와 함께 하는 추모행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추모관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노동자, 시민이 온라인 추모관에 들어와 유가족을 격려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전한 일터와 세상을 위한 다짐을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추모관 주소는 <https://padlet.com/h2699/aricell0624> 다. 온라인 추모관에 남긴 추모의 뜻은 유족에게 전해진다.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아리셀과의 첫번째 교섭, 사측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지난 5일 오후 2시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참사 12일 만에 사측 아리셀과 마주하는 교섭이 열렸다. 사측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아리셀 본부장 등 4인이 참여했으며 피해자인 유가족 측은 유가족 대표 3인을 포함한 7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했다.

대책위의 브리핑에 따르면, 유족 측은 교섭에 앞서 미리 자리하고 있던 경기도, 고용노동부, 화성시 관계자에게 “이 자리는 관이 낄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퇴거를 요청했다. 경기도 부지사는 “퇴거의 이유를 모르겠다. 왜 퇴거를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고 이에 거센 항의가 있음에도 계속 요구에 불응하다 유가족 대표들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했다.

사측은 “사과를 하려고 온 자리다. 사과와 유가족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유가족들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서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또한 사측은 “이번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는가” 묻는 교섭단의 질문에 “책임은 인정하지만 100% 회사측 잘못이라고는 말 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교섭단이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자 사측은 “일부 소실된 것도 있고, 메이셀(파견업체)에서 제공 받지 못한 자료도 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나 당일 문서 등 자료가 비치된 사무동은 전혀 피해가 없었음을 확인한 유족 대표가 이를 “거짓말”이라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교섭을 마치고 교섭 보고를 받은 피해자 유가족들은 오늘 사측이 보인 태도에 격분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더 열심히 ‘협의회’와 ‘대책위’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교섭은 사측에 요구한 자료의 제공 여부에 따라 실무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더이상 노동자가 죽음에 내던져지지 않게" 시민제

오후 7시에는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안기희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안기희 공동대표는 "예견된 참사였다. 노동, 시민사회 등 우리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또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 여기 조화를 보낸 정치인들이 억울한 죽음에 무엇이랄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이들이 이 참사의 책임자이고 주범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함께 하자"고 했다.

유생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희생자들을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해 보도되는 현실에 절망한다. 화일약품 참사에 이어 이번 아리셀 참사로 다시 화성시청 앞에 선 나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 많은 이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딜 수도 있다. 희생자 가족들 곁에서 최대한의 힘을 보태며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시민불편 운운하며 분향소를 모두누림센터 지하로 옮기라는 화성시의 처사가 너무 비정하다. 화성시는 피해자의 권리와 시민들이 추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에 노동자가 내던져졌다. 이 비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유족도 발언했다. 지난 4일 영정 안치 과정에 쓰러졌던 고 최은미선 님의 유가족 최병학 님은 “화재가 아닌 폭발의 현장에서 ‘뜨겁다’라는 말도 못하고 희생당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아파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함에도 ‘미안하다’말 한마디, 사과도 없는 회사와 화성시 등에 분노한다. 한국 정부 역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가슴 속에 박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이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한’을 풀겠다”고 발언했다.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7월 5일 다섯번째 아리셀 중대재해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조연주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